

국립민속박물관 소장 8폭 병풍 복합식 천문도의 제작 연도에 대하여

나일성

연세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

서양 천문학이 17세기말부터 중국에 전파되면서 동양(특히 중국과 한국)의 전통적인 천문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. 그 이유는 (1)당시의 천문학자에게도 확인되지 않는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함부로 별의 수를 가감하지 못했던 전통을 깨고, 과감하게 없는 별은 제외시켰고, (2)보천가(步天歌)나 천문유초(天文類抄)에는 없으나 별이 밝아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을 추가시켰고, 그리고 (3)적도 이남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남반구의 별들을 새로 포함시킨 사실 때문이다. 이 시기가 지나면서 18세기에 이르면, 서양의 천문학 지식을 수용한 새로운 천문도가 조선의 관상감 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된다. 이 때 제작된 천문도는 당시의 중국학자들에 의해서 제작된 것 보다 오히려 더 활발했으며, 또 동시에 규모도 큰 것이었다.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것으로서 현재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이 3종에 이른다. 이 3종의 천문도는 전부 영조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혼천전도(渾天全圖)¹⁾와 두 개의 8폭 병풍으로 된 큰 천문도^{2), 3)}인데, 불행하게 그 제작 연대가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다. 본인은 최근에 일본 남방문화관(南方文化館)에서 얻은 사진을 판독하는 과정에 우연히 한 장의 사진에서 위의 2종의 8폭 병풍식 천문도중 하나인 국립민속박물관의 복합식 천문도(複合式天文圖)의 제작연대를 밝혀 주는 기사를 발견했다. 이에 의하면, 법주사에 소장되어 있는 소위 「신법천문도(新法天文圖, 보물 제848호)」 보다 앞서 제작된 이 천문도의 제작 연대는 1768년이다. 이 새로운 사실로 인하여 지금까지 추정해온 두 천문도의 제작 연대는 재고되어야하게 되었다.

1) Nha I.-S. 'Honchon Jon-do, a star map made in the 18th century in Korea', in *Proceedings of 2nd International Conf. of Oriental Astronomy*, eds. Bo Shuren and Kwan-Yu Chen (*in press*)

2) Needham, J. and Lu G.-d. 1966, *Physis*. 8.2: 137-62. Needham 등은 이 천문도의 제작 연대를 1755년이라고 추정했다.

3) 李龍範, 1966, '法住寺所藏의 新法天文圖說에 대하여' 『歷史學報』 31:1-66, 32:59-119. 李龍範은 이 천문도 제작에 참여한 인물들을 참고하여 그 제작 연대를 영조18년인 1742년이라고 추정했다. 그 후 全相運도 영조18년인 1742년을 주장했다(한국과학기술사, 1975, 정음사, p. 50).